

# 겨울도시시장회 소식지

World Winter City News

한국어 요약판

2006년 11월호

World Winter Cities Association for Mayors

발행: 세계겨울도시시장회

060-8611 삿포로시 주오쿠 기타 1 조 니시 2 초메 삿포로시  
국제부

Tel: +81-11-211-2032 Fax: +81-11-218-5168

e-mail: wwcam@city.sapporo.jp

web: http://www.city.sapporo.jp/somu/kokusai/wwcam/

## 실무자회의에서

### 제 13 회 시장회의의 개최계획이 발표된다!

세계겨울도시시장회(WWCAM) 실무자회의가 차기 시장회의가 열릴 누크 시(그린란드)에서 7 월에 개최되어 회의의 실시계획과 테마, 시장회의 운영등에 대해서 협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제 13 회 시장회의의 개최계획안>

기간

2008년 1월 17일 ~ 20일

전체 테마

‘북극권의 기후 변동’

회의 테마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억제하는 수단’

‘겨울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시장회의와 동시에 개최되는 ‘겨울 견본시장’, ‘겨울도시 포럼’의 테마도 시장회의와 같은 ‘북극권의 기후변동’으로 정하여 북극권으로부터 지구환경문제를 세계를 향해 전하고자 하는 의지를 누크시가 표명했습니다.

빙하의 후퇴 등으로 대표되는 북극권의 기후 변동 문제는 지구 전체의 온난화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며 북극권 거주자뿐만 아니라 지구에 사는 모든 생물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시장회의에서 각 회원도시가 지구온난화 대책의 사례를 소개하고 지혜와 경험을 공유하여 겨울 도시가 단결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나아가서는 북극권의 환경문제 대책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겨울도시환경문제 소위원회

올해 1 월에 열린 제 12 회 시장회의(중국, 창춘)에서 설립된 ‘겨울도시환경문제 소위원회’

의 제 1 회 회의도 열리며 소위원회에서 다음 테마와 앞으로의 활동 기간 등에 대해 협의했습니다.

테마는 ‘세계적인 환경문제’이며 2008 년의 제 13 회 누크시장회의까지 남은 2 년을 ‘환경에 대해 각 회원도시에서 공동 인식을 가지는 기간’으로 삼고, 그 후 프린스 조지시(캐나다)에서 개최되는 2010 년 시장회의까지의 2 년을 ‘환경문제에 대한 행동 기간’으로 삼아 공동의 캠페인을 벌이는 등 소위원회의 성과를 세계에 전파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되었습니다.

소위원회에서는 누크시, 앵커리지시(미국), 태백시(한국)에서 각 도시의 환경 대책 사례도 소개되었습니다.

## 러시아 마가단(Magadan)시 가입, 회원도시 20 개로...

창춘 회의에 참관인자격으로 참가한 러시아 연방의 마가단 시가 2006 년 7 월에 정식으로 회원도시가 되어 세계 겨울 도시 시장회의 회원은 11 개국 20 개 도시가 되었습니다.

마가단시는 2009 년에 창설 70 주년을 맞이하는 역사가 짧은 도시입니다. 금광맥이 풍부한 이 도시는 기구한 운명을 걸어왔습니다. 그 역사는 개척자의 낭만으로 가득하지만 소련 시대의 슬픈 과거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의 인구는 10 만 7300 명, 겨울의 추위는 혹독하여 1 월의 평균기온은 영하 19.5 도로 영하 30 도까지 떨어지는 일도 있습니다. 10 월에 첫눈이 내리고 눈은 5 월까지 계속됩니다. 12 월의 최심적설량(最深積雪量)은 105 cm, 5 월에는 115 cm입니다. 여름은 짧고 강수량도 많으며 7 월의 평균 기온은 8.8 에서 11.1 도로 6 월에서 8 월 사이에는 백야가 계속됩니다.

주요 산업은 기계제조, 수송, 금속가공, 어업 및 해산물가공업, 농업 등으로 환태평양제도와 파트너 쉽을 맺고 있어 미국, 일본, 한국의 제휴 기업과 연료 수출입에 관해 업무 제휴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 문화, 교육의 중심도시로서 국제 관계가 눈에 띄게 진전되고 있으며 자매도시로는 앵커리지 시(미국), 둔화(중국), 엘가바시(라트비아)가 있습니다.

### 앵커리지시의 환경대책사례

앵커리지시의 환경대책에 대하여 시장보좌관인 데이비드 램서씨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현재 알래스카주에서는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빙하가 녹기 시작해 백곰이 익사하고 연어가 신종 병에 걸리는 등 생태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앵커리지시에서는 지구온난화를 범지역적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풍부한 풍력자원을 살린 풍력발전, 쓰레기처리장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재활용한 발전 등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나오는 폐유를 디젤과 혼합하여 자동차 연료로 재활용하고, 유리를 잘게 부수어 철도의 마찰력 증강재로 재활용 하는 등의 재활용 대책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시설 등에서는 최신 에너지 절약형 난방, 공기정화설비를 도입하여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줄이는 동시에 시설의 유지 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요구하는 조례도 책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밖에 기후변화에 관한 회의 유치와 인근 각 도시와의 연계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 겨울 견본시장에 독특한 출품

#### 이케스기 건설: 에너지효율이 높은 주택

2006년 1월에 열린 시장회의와 동시에 개최된 겨울 견본시장에는 중국 및 외국에서 온 200개가 넘는 기업 및 단체가 참가하였으며 일본에서도 24개의 기업 및 단체가 참가하였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참가 기업 중 하나인 이케스기 건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케스기 건설에서는 토대, 대들보, 기둥 등 가옥의 골격을 외부에서 단열재를 이용해 통째로 싸는 'SHS(styro house system) 공법으로 주택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 공법을 쓰면 열 손실이 적고 적은 양의 에너지로 집 전체 냉난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택 내부의 온도 차가 없어 연중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주택의 뼈대가 외부의 추위에 노출되지 않아 이슬 맺힘 현상이 드물고 곰팡이나 진드기의 번식을 막아 알레르기성 피부염과 소아 천식 등의 원인을 제거하며 건물의 수명을 연장해 건강한 거주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공동프로젝트:

#### 한여름 베이징에서 겨울의 매력을 홍보

세계 겨울도시 시장회에서는 중국 베이징에서 6월 22일 ~24일에 개최된 '베이징 국제 여행 엑스포 2006'에서 공동으로 관광 홍보를 하였습니다. 참가 도시는 5개 도시로, 선양시, 창춘시(중국), 태백시(한국), 아오모리시, 삿포로시(일본)가 참가했습니다.

베이징에서는 겨울에도 눈이 많이 내리지 않으며 여행 엑스포 기간에는 기온이 30도까지 올라가는 더운 날이 계속되기도 하여 더위를 식히러 찾아온 관광객들이 겨울의 매력이 담긴 비디오와 사진에 열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행 엑스포에는 60개 이상의 국가와 지역에서 600개가 넘는 단체가 참가했습니다. 겨울이라는 특정 계절에 초점을 맞춘 세계겨울도시시장회의 공동 출전(出展)은 독특한 관광 홍보로서 주목을 받아 현지 라디오 방송에도 소개되었습니다.

### WWCAM 회원도시간 교류

#### 울란바토르에서 삿포로에 온 연수생

세계겨울도시시장회에서는 회원도시들의 관심 분야에 따라 교류를 하고 있으며 삿포로시에서는 2001년 이후 매년 울란바토르 시청 직원을 연수생으로 받고 있습니다.

2005년에는 국제교류부의 볼드 카얀가라브(Bold Khayangarav)씨가 삿포로에 와서 일본의 행정조직에 대해 연수를 했습니다. 울란바토르시에서는 시외에서 많은 사람이 유입되어 게르(gher)를 짓고 살게 된 것이 원인이 되어 대기가 오염되고 있다고 합니다. 1998년에 세계겨울도시시장회의 회원이 된 울란바토르시에서는 시장회 활동을 통해 제설과 환경 대책을 배우고 이를 도시계획에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창춘 겨울도시 포럼

#### ~환경친화적 연료 “펠릿(Pellet)”에 대하여~

올해 1 월 중국 창춘시에서 열린 제 12 회 세계겨울도시시장회의에서는 겨울도시 포럼이 개최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28 명의 전문가와 학술연구자가 겨울의 생활양식과 도시계획을 주제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환경친화적인 연료로서 최근 주목을 받기 시작한 ‘목질(木質) 펠릿’에 관한 2 개의 발표를 소개합니다.

#### 칼마르시의 목질 펠릿의 활용에 대하여 스웨덴 칼마르 시청의 보 린드홀름(Bo Lindholm) 씨

칼마르시에서는 총발전량의 47%를 펠릿을 이용하여 발전하고 있으며 바이오매스의 선진국인 스웨덴에서도 특히 선진적으로 펼치는 도시입니다.

목질 펠릿이란 나무를 벌채한 후에 나오는 목재 부스러기 등을 분말로 만들어 별도의 첨가물 없이 그대로 고형화하여 만든 연료로 연소할 때 이산화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으며 삼림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경에 대한 부담이 적은 연료로서 최근 주목받고 있습니다. 칼마르시에서는 20 년 전부터 이 펠릿의 활용을 권장하고 있으며 현재 일반 가정의 난방뿐만 아니라 화력발전에도 사용하여 많은 분야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 년 전의 1/10 이하로 대폭 절감되었습니다.

칼마르시에서는 앞으로 법적인 규제에 그치지 않고 에너지 사용 및 이산화탄소 배출에 관한 세금, 펠릿 도입을 위한 조성금, 전력 거래의 규제완화 등 경제적인 유인책을 통해 펠릿을 더욱 보급해 나갈 예정입니다. 장래에는 석탄 석유 등의 화석 연료에서 100%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홋카이도 아쇼로초에서 펠릿 사용에 도전 아쇼로초 목질 펠릿 연구회 회장 나카지마 마사히로 씨

아쇼로초는 인구가 약 8,500 명이며, 지역의 80%가 산림으로 이루어진 임업이 번성한 고장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으로서 풍부한 산림에서 나오는 폐목재에 주목하여 4 년 전부터 목질 펠릿의 제조를 시작했습니다. 펠릿 제조를 위해 스웨덴에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만 당시에 제가 지도를 받았던 분이 보 린드홀름 씨 입니다.

시행착오를 거쳐 2003 년에는 민간기업, 연구기관, 행정으로 구성된 아쇼로초 목질 펠릿 연구회를 발족시켰으며, 2005 년에는 14 개 회사로 이루어진 도카치 펠릿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펠릿의 제조시설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펠릿의 지명도가 낮고 수요가 적은 등 많은 과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여러가지 환경 에너지가 등장하여 앞으로는 그러한 여타 환경에너지와의 경쟁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화석연료 의존에서 벗어나 지구온난화 대책을 추진하려면, 현시점에서는 이 목질 펠릿이 최적의 에너지이며 앞으로도 목질 펠릿의 보급을 위해 도전해 갈 예정입니다.